



제2의 인쇄 메카 추진 '대덕특구에 산업단지 조성' 공청회

대전·충남인쇄출판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공청회가 지난 4월 16일 대전 오페라웨딩홀에서 대전·충남인쇄출판산업단지 추진위원회(위원장 박영국) 주최로 개최됐다. 이날 공청회에는 지역 인쇄출판업체 대표, 관련 학계·행정기관 관계자 등 수백여 명의 인사가 참석해 동 단지 조성의 필요성을 실감케 했다.

이날 공청회는 육동일 대전발전연구원장의 사회로 박영국 추진위원장이 '인쇄출판산업단지의 추진배경'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했으며, 이종국 교수(해천대학)가 '인쇄출판 산업의 미래'에 대해, 오희자 디자인학부장(대덕대학)이 '대전·충남 인쇄출판 산업의 미래'에 대해, 이진숙 교수(충남대 건축학과)가 '인쇄출판 산업단지의 바람직한 조성방안'에 대해, 구자빈 대전·충남인쇄정보조합 이사장이 '대전·충남인쇄 출판산업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라는 내용으로 각각 주제 발표를 했다.

주제 발표에 앞서 구자빈 대전충남인쇄정보조합 이사장은 "오늘날 인쇄출판 산업은 다양하게 분화하는 현대문명의 이기 앞에서도 늘 새로운 모습으로 정보전달의 첨병으로 발전해 왔다"면서 대전·충남지역의 인쇄출판 발전을 위한 단지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박영호 대전광역시장은 축사를 통해 "우리 대전은 중앙동과 삼성동을 중심으로 인쇄인프라가 직접된 전국 3대 인쇄산

업도시로 손꼽혀 왔고, 연간 3,600여억 원의 매출로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에도 주변 환경이 열악해 발전에 지장을 받아 왔다"면서 "따라서 인쇄출판 산업의 집적화와 현대화를 통한 새로운 활로를 찾는 것이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하나의 지역문화로 자리 잡게 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영국 추진위원장은 발제를 통해 "대전광역시는 행정복합도시의 주요 배후 도시로서 앞으로 정부기관의 이전에 따른 막대한 인쇄물량을 안정적으로 조기에 확보하여 지역특화산업으로의 육성이 필요하다"면서 "현재 대전지역의 인쇄업체들은 대전 역세권 내인 동구 일원에 750여 업체가 밀집되어 있는데 재정비 지역으로 지정되어 첨단 시설 도입이 어렵고 투자를 하지 못해 이전을 해야 하는 처지"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대전광역시는 현재 대덕특구 2단계 개발 지구인 유성구 둔곡동 일대를 인쇄출판산업단지 부지로 검토하고, 실무부서 회의를 통해 추진방향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은 육동일 대전발전연구원장이 발표한 '인쇄출판 산업단지의 필요성'과 구자빈 대전충남인쇄정보조합 이사장이 발표한 '대전충남 인쇄산업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소개한다.

박성권 기자 vovsys@print.or.kr

인쇄출판산업단지의 추진배경



육동일 · 대전발전연구원장

인쇄업은 도시 내부에 입지하고 있는 다양한 업체 및 공공기관의 업무 기능을 보조하는 도시형 산업이고, 생산 과정에서는 이들 수요자와 빈번한 접촉을 필요로 하는 시장 지향형 산업이다. 소규모 인쇄업체는 생산 공정 가운데 일부만을 담당하므로, 관련 업체들과 빈번한 거래를 통해 비로소 완전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고, 이를 위해서는 관련 업체들이 공간적으로 인접하여 입지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대구출판문화산업단지 지역 인쇄출판업의 경쟁력을 세계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200여개 업체를 집적시키고 비즈니스와 문화활동, 지원 관련 시설 등을 갖춘 출판문화산업단지가 남대구IC 일대에 24만5천㎡ 규모로 들어선다. 구체적으로 진행 중인 대구 산업단지는 현재 입주 신청이 애초보다 높고 있다고 알려졌다.

대전인쇄출판산업단지 동구 삼성동 중동 정동 일대를 중심으로 인쇄, 출판, 출력, 제본, 디자인 등 관련 업체 700여 개(종사자 5000여 명)가 몰려 있다. 이는 서울과 대구에 이은 전국 세 번째 규모이며 연간 3600억 원(2007년 기준)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역세권 개발과 맞물려 이전이 불가피해진 업체들은 2008년 산업단지 추진위를 구성하여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광주인쇄문화산업단지 광주 지역 역시 관련 업체를 중심으로 인쇄문화산업단지를 희망하고 있다. 현재까지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으나 대구와 대전의 산업단지가 가시화되면 광주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대전충남인쇄산업의 현재와 미래



구자빈 · 대전충남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

우리의 인쇄산업은 근대역사의 불운함처럼 일제강점하의 독립운동에 일조한다는 이유로 인쇄산업을 억압하여 왔으며 한국전쟁과 군부의 정권창출로 통제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는 반면 선진국들은 근·현대사에 영주들이나 국가가 장악하여 기업형으로 인쇄산업을 발전시켜 현재도 글로벌 인쇄기업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다행히 우리나라에도 IT 문화가 보편화되면서 인쇄산업과 접목되어 오늘날 빠르게 기업형으로 전환되는 추세에 있는데 대전의 경우 서울·대구에 이어 우리나라 인쇄산업의 3대 축을 이루며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여 현재 인쇄관련 업체수 2,000여 업체의 종사자수 5000여명, 매출액 3000억 원에 이르는 지역경제의 한축을 이루고 있다. 대전의 인쇄산업의 특성은 공공기관이 많고 전형적인 소비도시인관계로 단일 규모가 크지 않고 업체수가 많은 형태로 발전해 있는 터인데 장차 행정복합도시인 세종시가 완성되면 대전의 인쇄산업은 더욱 활성화 될 것이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대전역 역세권 재정비 권역에 대전의 인쇄특화거리가 포함되어 있는바, 수십 년 형성되어 온 인쇄거리는 비좁은 골목길과 낡은 건물들로 인하여 첨단화되고 빠르게 기업형으로 전환되는 인쇄산업의 환경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최근 대전의 인쇄업계에서 인쇄조합을 중심으로 인쇄출판산업단지 조성을 추진중인 것은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다. 세계 경제의 패러다임이 글로벌화하는 상황에서 국내 인쇄출판산업도 예외가 아니어서 기업형 내지 첨단화하지 못한다면 충분히 활성화된 대전의 인쇄산업도 사양산업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사통발달 좋은 지리적 여건과 물류비중이 높아가는 현대의 산업 구조속에서 대전의 인쇄산업이 더욱 가치 있는 문화산업으로 성숙하려면 결과적으로 산업단지 완성이라는 대전제가 필수이다. ☺